



# 28

## 140년 전통의 대리석, 네우트라Neutra의 재도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밀리오레+세르벤토,  
architettimiglioreservetto.it  
웹사이트 neutra.design



1880년 이탈리아 브리안차에서 설립한 유서 깊은 대리석 브랜드 네우트라Neutra가 최근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2022년 비엔나 이탈리아 창립자 피에로 암브로지오 부스넬리의 아들인 에마누엘레 치코 부스넬리가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밀리오레+세르벤토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한 것이다. 네우트라는 전통적 장식재로 여겨온 대리석의 물성, 색조, 질감을 조형적 서사로 확장해 '물질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새롭게 정립했다. 올해 발표한 컬렉션은 인수 이후 2년 만에 걸친 치밀한 기획과 큐레이션, 장인 정신의 결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표작 '파지나Pagina'는 펼쳐진 책을 연상시키는 모듈형 책장으로 포르토로 네로Portoro Nero와 브레차 안티카Breccia Antica 대리석을 결합해 제작했다. 표면 위에서 빛이 반사되고 흐르는 장면을 페이지처럼 연출하며, 기능적 가구를 넘어 대리석이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 역할을 한다. 조명

디자인 '스트로빌로Strobilo'는 물의 소용돌이가 바위를 깎아내는 과정을 조형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무게감 있는 대리석과 투명한 유리를 결합해 시간의 흔적과 재료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팔라초 비스콘티 내부에서 선보인 쇼케이스 '모노크롬 어피니티'는 5개의 방을 맞춤 제작한 가구와 마감재로 섬세하게 디자인해 컬렉션 전체를 하나의 서사적 흐름으로 제시했다. 재료를 다루는 장인의 손길과 현대적 공간 연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도약한 네우트라는 오랜 전통 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대리석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브랜드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다.  
글 하도경 통신원 **담당** 김지아 기자

- 1 '파지나' 책장은 금속과 대리석을 결합한 비대칭 구조로, 빛의 반사와 투과를 활용해 공간에 리듬감과 개방감을 준다.
- 2 '스트로빌로'는 대리석 상판과 원통형 유리 몸체가 빛을 부드럽게 굴절시켜 은은한 그림자와 고요한 반사를 만든다.